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희망의 노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나의 하나님	다같이
대표기도		안혜진
*성경봉독	신 6:1-5	김유리
말씀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들으라 이스라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온 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힘을 다해

말씀산책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 (신 6:1-5)

1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2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5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4-5)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과정이 마무리되고 다음 과정으로 들어서는 때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옳은 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를 종합한 책입니다. 첫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이며,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이고, 마지막 설교가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 설교가 시간적 스펙트럼을 갖고 구성되어 있는데, 즉, 첫 설교는 과거,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측면에서 볼 때, 삶의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는 지나온 길을 회고해야 함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신 29:5-6)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기에 큰 힘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현재보다는 과거를 회상할 때 더더욱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를 잘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도 지켜주신 이가 미래에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 1:30)

과거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은, 지난 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쉽게 넘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 은혜로 살만 해지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마음에 되새기는 것은 인생의 전환기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현재와 관련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시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라' 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새 환경 적응, 새 직무 적응, 보금자리 마련, 새 공부 시작 등)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는데, 자칫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의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전환기에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이와 관련해, 예배와 봉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12장-16장, 봉헌: 26장) 예배야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과 관계가 정립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의 시작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배자의 마음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꼭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이 봉헌, 즉 헌금 생활입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곳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의 첫 소산물과 십일조를 요구하셨습니다. (신 26:10, 12) 십일조와 주일 헌금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것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 드릴 때,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신실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십일조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 받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말 3:10)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 이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새 직장을, 새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곳에서 수확한 월급의 십일조와 첫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 미래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새 길에는 축복의 가능성도, 저주의 가능성도 함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 말씀 공존 – 신명기 28장) 이는 주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도 축복과 성공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어느 길로 갈 지 분별하는 노력만큼, 그 길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와 관련한 두 번째 지혜는, '비록 실패할 지라도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신 31:16)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그것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증거가 필요하실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순종할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주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신 32:39)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이 점 기억하고 우리는 비록 징계를 받을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돌이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시간의 스펙트럼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단연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말씀이 주는 지혜입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과거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미래에 대한 용기를 얻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나의 현재 예배와 봉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점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할까요?
3. 주님 여시는 길이라도 축복과 저주의 가능성이 함께 열려 있다는 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훨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ANNOUNCEMENT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YouTube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가급적 현장예배 참석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주일(6/19)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optional)으로 변경됩니다.

김상범 전도사 목사 안수 및 위임식
6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4시, 본당

2022년 수련회
기간 : 9월 2일(금)~4일(주일)
장소 : Camp Buckner (3835 FM 2342, Burnet, TX 78611)

목장 방학
목장 모임은 6월말까지하고, 두 달간(7월, 8월) 공식적인 목장모임은 쉽니다. (7, 8월에도 현재의 목장은 유지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염평안, 조찬미, 임성규) 찬양 콘서트
7월 9일 (토) 오후 5시, 본당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교리 산책 (1)
일시 : 6월 25일 (토) 오전 9:30~11:30
주제 : 삼위일체-하나님의 신비한 존재를 만나다
신청 : 5명 추가 가능 (25명 정원), 사무실로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
양육기간 : 총 16주

ANNOUNCEMENT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50권 23호
JUN 12
2022

예수산책
어스틴한인장로교회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